

##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한 주제분석: 포커스 그룹을 중심으로

박찬양\*, 김진아\*\*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을 심층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음악치료 인턴 다섯 명을 대상으로 경험적 음악치료 집단의 일환으로 치료적 노래만들기 워크숍을 240분씩 총 2회 진행한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들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자료를 Braun & Clarke(2006)의 방법으로 주제분석하여, 총 6개의 주제와 18개의 하위 주제를 도출하였다. 6개의 주제는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대한 선입견', '의미있는 작사 과정', '작곡에서의 도전적 경험', '치료적 노래만들기 기법의 구조성 경험', '음악을 통한 자기인식의 발전', '집단작업을 통한 관계적 경험'으로 나타났다. 음악치료 인턴들은 치료적 노래만들기의 단계적 구조를 통해 집단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소통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나의 노래로 완성하였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약점이라 느꼈던 작곡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고, 스스로의 욕구와 필요성을 인식하며 개인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음악치료 인턴은 치료적 노래만들기 과정에 참여하면서 인턴훈련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을 규명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개인적 성장과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핵심어: 음악치료 인턴, 경험적 집단, 치료적 노래만들기, 포커스 그룹

\*주저자: 헤브론선교대학교, 음악중재전문가(KCMT) (morning557@naver.com)

\*\*교신저자: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예술심리치료학과 교수(jinahkim@jj.ac.kr)

## I. 서론

음악치료 인턴십 과정은 인턴들이 교육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여 내담자들에게 적용하고 실행해보는 임상 훈련의 장이다(Chong, 2015; Kim, Jeong, & Ko, 2013). 이는 음악치료 인턴들이 치료사로서 지녀야 할 자세와 태도, 철학을 정립하고, 내담자의 필요를 다룰 수 있는 지식 및 기술을 실현해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Bruscia, 2003; Wheeler,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음악치료 인턴들은 인턴십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부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 Chung, 2004; Wheeler, 2000). 즉 인턴들은 자신들이 학습한 이론과 기술을 실제 세션에 적용하여 진행하는 것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았고, 기술과 경험의 부족으로 혼란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보고가 있다(Kim et al., 2013). 이 밖에 실습관련 대인관계의 어려움(Lee, 2010), 실습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과 피로감, 슈퍼비전에 대한 부담감과 평가불안 등이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Kim, 2009). 이에 음악치료사의 자기 돌봄과 성찰은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최근 음악치료사의 직무 소진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전문 음악치료사가 되기 위한 과정을 준비 중인 음악치료 인턴들도 예외는 아니므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Kim, 2018).

음악치료 인턴들이 직접 내담자로서 참여하는 경험적 집단(experiential group)은 인턴들이 자기 돌봄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경험적 집단은 음악치료 인턴들로 하여금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자기 돌봄 및 성찰을 촉진시켜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음악치료에서의 음악활동은 음악경험자 자신의 내면세계 외 개인적 이슈를 인식하고 탐색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McCaffrey, 2013). 이 같은 경험은 이들이 진행하는 임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8). 또한 이를 통해 음악치료 인턴들은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임상 기법 및 음악적 기술을 습득했다는 보고도 있다(Baker & Krout, 2011; Kim, 2018). 따라서 음악치료 인턴들의 경험적 집단을 통해 치료적 경험은 이들에게 개인적, 전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Choi, 2009; Kang, Lee, & Choi, 2016).

음악치료에서 주로 사용하는 음악활동 중 노래는 보편적인 표현활동으로, 임상대상과 목표, 환경 등에 따라 유연하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 개사하기, 즉흥노래, 치료적 노래만들기 등이 있으며 그 중 치료적 노래만들기는 임상 목표를 고려해 노래를 만드는 작업이다. 치료사는 내담자가 직접 가사와 선율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서 노래를 완성할 수 있게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노래만들기를 통해 내담자의 정서적 자기표현을 돕고 궁극적으로는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유도할 수도 있다.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통한 자기표현에는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있으며, 두 요소는 내담자로 하여금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유롭게 적절

하게 정서를 표현할 수 있게 한다(Baker & Wigram, 2008; Jin, 2005). 즉 참여자는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표현할 수 있고, 스스로의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Baker & Wigram, 200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험적 집단에 참여한 치료사는 자기에 대한 인식과 성찰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와 통합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Yoo, 2019). 이는 치료사가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역전이, 직업적 소진 등의 상태에서의 부적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Corey, Corey, & Corey, 2013).

음악치료 인턴을 대상으로 발표된 선행연구에서는 목소리즉흥(Jeong, 2013), 음악심상기법(Music & Imagery)(Kim, 2018) 등이 사용되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Kim, 2018; Jeong, 2013), 음악치료 인턴들은 음악치료 참여 경험을 통해 내면을 탐색하고 통찰하는 한편, 평소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수용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임상 현장에서 일어난 역전기와 부적 감정 등을 탐구하고 해소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경험적 음악치료에 내담자로서 참여해 보니 어떻게 치료를 제공해야 할지 내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한편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치료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Jeong, 2013; Kim, 2018; McCaffrey, 2013).

치료적 노래만들기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언어와 음악에 자신의 생각을 담아 노래를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Baker & Wigram, 2008).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노래를 주요 활동으로 사용한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 즉흥음악연주와 음악심상 경험을 탐구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국내 학위 논문에서는 치료적 노래만들기 기법의 효과 검증에 초점을 맞춘 양적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음악치료사 또는 음악치료 인턴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도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음악치료 인턴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표현하는데 비교적 익숙하고, 자기 탐색의 의지가 있는 음악치료 인턴들에게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제공하여 이들이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참여자의 관점과 그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의미를 총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했다(Creswell & Path, 2016). 본 연구에서는 음악치료 인턴들에게 치료적 노래만들기 워크숍을 제공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해 탐구하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음악치료 인턴들은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2. 음악치료 인턴들은 치료적 노래만들기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 2-1. 작사 및 작곡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
  - 2-2. 의미 있거나 어려웠던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 2-3.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통해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자는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 있고, 참여 집단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크기의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로 음악치료 인턴을 모집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5명의 주요 인적 사항은 다음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표 1> 참여자 일반적 특성

Participant 대상자	Gender 성별	Age 나이	Internship placement 인턴 기관	Degree 학위 과정
A	Female 여성	22	Adult psychiatry, private music therapy practice 성인 정신과, 사설음악치료센터	Bachelor 학사
B	Female 여성	24	Adult psychiatry, private music therapy practice 성인 정신과, 사설음악치료센터	Bachelor 학사
C	Female 여성	24	Adult psychiatry, private music therapy practice 성인 정신과, 사설음악치료센터	Bachelor 학사
D	Female 여성	24	Adult psychiatry, private music therapy practice 성인 정신과, 사설음악치료센터	Bachelor 학사
E	Male 남성	26	Adult psychiatry, private music therapy practice 성인 정신과, 사설음악치료센터	Master 석사

본 연구는 단일 미니 포커스 그룹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은 모두 음악치료 전공자들이며 교과과정에 경험적 음악치료 집단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선행 경험이 있으므로 적은 인원으로 도 연구 주제에 관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Kruger & Casey, 2015; Shin et al., 2004).

### 2. 윤리적 고려

생명윤리위원회의를 통한 연구진행 승인(jjIRB-180219-HR-2018-0205)을 받은 후에 연구를 시행했다.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방법, 자료수집 방법, 비밀보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후 보관했고, 워크샵 참여 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연구 참여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3. 연구 과정 및 자료 수집

치료적 노래만들기 워크샵은 주 1회 약 240분씩 총 2회 진행되었으며,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약 250분간 총 1회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시간적 제한성을 고려하여 요일과 시간이 선정되었고, 모든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구체적인 일정을 조정하여 결정되었다.

#### 1) 치료적 노래만들기 워크샵

연구 참여자들이 직접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워크샵에서 진행된 활동은 Baker & Wigram(2008)이 제시한 치료적 노래만들기 방법을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활동 순서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The Process of Song Writing Workshop

<표 2> 치료적 노래만들기 활동 순서

Activities 활동
1. Warming up activities for induction 도입 워밍업 활동
2. Brain-storming process and then drawing the mind-map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그리기
3. Creating lyrics 가사 만들기
4. Selecting genre of music, style and tonality of the song 노래의 스타일과 조성 정하기
5. Creating melody, harmony and accompaniment 선율 만들기, 반주 구성하기
6. Singing and recording of the song 녹음하기

#### 2) 포커스 그룹

포커스 그룹은 주어진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의도적으로 선발된(purposeful sampling) 참가자들과 심층적인 집단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질적연구방법이다(Kruger & Casey, 2015). 포커스 그룹은 목적, 크기, 구성과 절차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Kim & Kim, 2001; Kruger & Casey, 2015). 포커스 그룹은 눈

의 주제에 대한 참여자들의 태도, 관점, 신념 또는 의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활발한 상호 교류를 통한 비언어적인 표현 양상 등 참여자들의 의견이나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함께 수집할 수 있다(Connolly, 2015; Then, Rankin, & Ali, 2014). 수집된 자료를 통해 관심 현상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특정 행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행동 이면의 동기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 포커스 그룹의 목적이다(Rabiee, 2004). 포커스 그룹은 계획, 모집, 진행, 분석 및 보고의 네 가지 기본 단계로 이루어진다. 진행의 과정에는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인터뷰를 실시하기 전 사전 준비가 필수적인데, 인터뷰의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터뷰 당일에는 미리 인터뷰 장소의 환경을 적합하게 조성해야 한다. 인터뷰가 시작되면 참여자들에게 포커스 그룹 토론을 소개하고,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이 마무리되면 자료를 전사한다(Connolly, 2015). 본 연구자는 참여자들의 경험과 구체적인 이야기를 촉진하기 위해 구조적이고 개방적인 질문들을 미리 구성하여 준비하였다(Kruger & Casey, 2015). 질문의 범주와 질문의 유형, 목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 인터뷰 질문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Steps of Semi-structured Focus Group Interview

<표 3> 포커스 그룹의 단계별 질문 유형 및 내용

Types of questions 질문 유형	Purpose 목적	Contents 내용
Opening questions 시작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facilitate considerate and permissive atmosphere</li> <li>· 참석자들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your internship placements?</li> <li>·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주시고 현재 나가고 있는 임상 실습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li> </ul>
Introductory questions 도입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introduce the topic of discussion and provide some time to think about</li> <li>·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이에 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efore the song writing workshop, did you have any thought on song writing?</li> <li>·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직접 경험하기 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li> </ul>
Transition questions 전환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provide a link between the introductory and the key questions</li> <li>·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핵심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an you compare song writing with improvisation? If so, can you describe what you can compare?</li> <li>·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을 즉흥연주 경험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비교할 수 있다면 어떤 점을 비교할 수 있을지 말씀해주세요.</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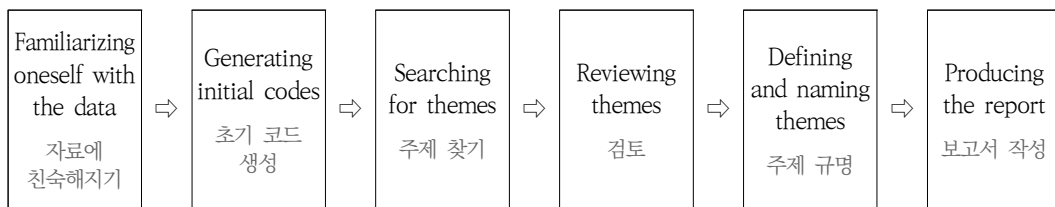
<Table 3> Continued

<표 3> 계속

Types of questions	Purpose	Contents
질문 유형	목적	내용
Core qu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provide a focus on the major issues so that the participants can get into in-depth discussion on that issu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lease describe your song writing experience. Were there any meaningful, or memorable aspects to it on the whole?</li> <li>· If there were meaningful experiences, can you elaborate on them?</li> <li>· Were there any difficulties or issues that you would like to bring up here? Please elaborate on them.</li> <li>· How would you describe your experiences of lyric creation process?</li> <li>· How would you describe your experiences of composition process?</li> <li>· Were there any changes, or newly gained insights when you consider pre and post song writing experience? Please elaborate on them.</li> </ul>
주요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의 중점 관심 영역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의미 있다고 느꼈던 것이나 기억에 남는 것 등 전체적인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li> <li>· 치료적 노래만들기에서 의미 있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li> <li>· 치료적 노래만들기에서 힘들었던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자세히 말씀해주세요.</li> <li>· 작사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했나요?</li> <li>· 작곡 과정에서는 어떠한 경험을 했나요?</li> <li>·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경험하기 전과 후에 변화된 것이나 새롭게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li> </ul>
Ending ques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o bring the FGI to closure: To ask participants to reflect on the entire discussion and their opinions on key issue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ould you please describe your song writing experiences in one sentence?</li> <li>· (after summarizing what had been said) Have I understood right?</li> <li>· Please tell me if there is anything we should talk about?</li> </ul>
마무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들이 어떤 것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돕고 토론에 대한 종결을 이끌기 위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것을 고려하는 질문: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문장을 말씀해주시겠습니까?</li> <li>· 요약 질문: (구두 요약 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나요?</li> <li>·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거나 빠뜨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li> </ul>

### 3) 자료분석: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얻은 자료의 공통 주제에 대한 의미를 밝히고자 Braun & Clarke(2006)의 주제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은 수집된 자료의 패턴(주제)을 확인하고 귀납적인 방법으로 대상자의 경험, 의미 등의 중심 주제를 분석, 보고하는 방법이다. 주제는 분석 자료에서 연구 질문과 관련된 중요한 데이터이며 그 의미와 대답의 패턴을 대표하는 것이다(Braun & Clarke, 2006). 주제분석의 목적은 수집된 자료가 서술하고 있는 개념을 찾아내고 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중심 주제를 도출하여 자료의 근본적인 아이디어, 개념, 이념 등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특히 포커스 그룹과 같이 참여자의 대답에서 반복되는 의미 패턴을 찾아내 세밀하고 많은 데이터를 조직하고 묘사하는 데 유용하다(Braun & Clarke, 2006; Maguire & Delahunt, 2017). Braun & Clarke(2006)이 제시한 주제 분석의 과정 6단계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Figure 1> Process of thematic analysis

<그림 1> 주제분석 과정

### 4. 연구의 신뢰성(trustworthiness) 확보 과정

본 연구에서는 자료분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계적 자료 분석과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Guba & Lincoln(1989)이 제시한 네 가지 일반적인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true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을 심도있게 고려했다.

첫 번째, 사실적 가치 판단을 위해 본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참여자들이 직접 검토하도록 하였다. 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와 원자료를 학문적 용어로 적절히 변환하기 위해 음악치료학과 교수의 검토를 받았다. 두 번째, 본 연구자는 문헌을 참고하여 워크숍 활동과 인터뷰 질문을 구성한 후 지도 교수에게 검토 받았다. 인터뷰 질문은 단계적으로 심층 질문을 구성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 본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고,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며 연구 결과의 일관성을 평가하였다. 네 번째, 본 연구자는 치료적 노래



만들기의 전체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구성했다. 진행 중에는 참여자들의 동의하에 과정을 기록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지도 교수의 감수와 검토를 통해 연구자의 편향성을 파악하고 배제하고자 노력했다(Shin et al., 2004).

### Ⅲ. 연구 결과

수집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개의 주제와 18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고 영문 결과와 국문 결과를 각각 <Table 4>와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의 특성은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대한 선입견’, ‘의미 있는 작사과정’, ‘작곡에서의 도전적 경험’, ‘치료적 노래만들기 기법의 구조성 경험’, ‘음악을 통한 자기인식의 발전’, ‘집단작업을 통한 관계적 경험’의 총 6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 1.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대한 선입견

##### 1) 기법에 대한 호기심

참여자들은 치료적 노래만들기가 무엇인지, 치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치료 상황에서 노래를 만드는 것과 일반적인 작사, 작곡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궁금해 했다.

치료적인 노래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노래를 만들면서 치료가 되고 이게 나한테 어떻게 좋은 점으로 될지 아니면 안 좋은 점으로 될지 궁금했던 것이 많았고(참여자 C)

저는 하기 전에는 치료적 노래만들기가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치료적이라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치료가 될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고(참여자 A)

##### 2) 임상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참여자들은 임상 현장에서 노래를 활용한 다양한 기법들을 이미 활용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노래를 창작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가사의 부분들만 같이 내담자랑 같이 (수정)했었지 처음부터 이렇게 가사를 만들고 음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내담자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참여자 C)

〈Table 4〉 Results of Focus Group Interviews

〈표 4〉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분석

Themes 주제	Sub-themes 하위주제
Preconception on song writing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대한 선입견	Curiosity on song writing 기법에 대한 호기심 Thoughts on expected difficulties 임상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Burdensome worries on composition 작곡에 대한 부담과 걱정
Meaningful lyric creation 의미 있는 작사과정	Lyrics as my story 작사는 나의 이야기 Empathic communication through shared lyric creation 공동 작사를 통한 공감과 소통
Challenging experiences in composition 작곡에서의 도전적 경험	Burdensome expectation on the quality of song production 노래의 완성도에 대한 부담감 The burden of composing 작곡에 대한 부담감 Influence of musical valance 특정 음악 스타일로 인한 압박감
Structured experiences of song writing process 치료적 노래만들기 기법의 구조적 경험	Benefits of structured process 구조화된 과정의 장점 Amendable and flexible structure 수정 가능한 유연한 구조 Therapeutic experiences through songwriting process 과정에서 일어나는 치료경험
Development of self-awareness through music 음악을 통한 자기인식의 발전	Awareness on inner-state of self through music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 자각 Accepting new and diverse experiences 다양성에 대한 경험과 수용 Dawning awareness of one's needs for therapeutic experience 치료 경험의 필요 인식
Relational experiences through group process 집단작업을 통한 관계적 경험	Being conscious of others 타인을 의식 Integration of diverse opinions 다양한 의견과 통합 One completed song 완성된 하나의 노래 Experiencing empathy and support 공감과 지지경험

### 3) 작곡에 대한 부담과 걱정

연구 참여자들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작곡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의 부담감을 느꼈다. 또한 서로를 비교하며 위축되는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는 음악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걱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여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느낌도 있었고(참여자 B)

노래를 만든다고 하니깐 선율이나 그런 노래 만드는 과정에서 음악적인 역량이 필요할 텐데(역량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긴 했어요(참여자 A)

## 2. 의미 있는 작사과정

### 1) 작사는 나의 이야기

참여자들은 자신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그에 대한 생각과 감정, 경험 등을 가사로 표현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로 담는 작업을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함께 만든 노래랑 가사에 담긴 의미가 다 같이 나눴던 대화들 안에서 나왔던 거라서 그 대화자체가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고, 자기 이야기를 하니깐 그게 노래 가사에 들어갔다는 게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참여자 C)

### 2) 공동 작사를 통한 공감과 소통

참여자들은 공동으로 작사하는 과정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나누고 구성원들과 공유했다. 특히 음악치료 인턴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과 감정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했다. 이러한 경험은 즐거운 정서를 유발한다고 말했다.

뭔가 정말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사실 저는 이야기하는 과정이 되게 재밌었고(참여자 B)

대화 자체가 의미가 되게 컸던 게 평소에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컸고(참여자 C)

나랑 공통분모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크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E)

### 3. 작곡에서의 도전적 경험

#### 1) 노래의 완성도에 대한 부담

참여자들은 스스로 작곡 지식이 부족하여 작곡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한편 음악치료 전공자로서 높은 수준의 완성도 있는 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부담이니까. 노래를 한다거나 예쁜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데(참여자 D)

예쁜 노래, 퀄리티 있고, 음악치료다 보니까 더 그런 음악적인(참여자 B)

잘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어울리게끔 해야겠구나 하는(참여자 C)

#### 2) 작곡에 대한 부담

위와 비슷한 이유로 참여자들은 작사 과정에 비해 작곡 과정에서는 흥미보다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며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작곡을 하는 과정이 이들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는 도전이었던 셈이다.

내가 만든 멜로디가 괜찮은지 스스로 끊임없이 확인하게 되고. 노래를 만든다는 부담이 흥미보다 더 컸던 것 같고 (노래를 직접 만든다는 게) 부담이었어요(참여자 B)

#### 3) 음악의 정서가(valence)에 따른 영향

참여자들은 특정 음악 스타일의 영향으로 감정과 태도의 변화를 경험했다. 일부 참여자는 우울한 음악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이 저하되는 것을 느껴 밝은 분위기의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밝은 분위기의 노래가 억지로 힘을 내야한다고 압박하는 것 같은 경험을 했다고 보고하였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분위기에 맞추면 같이 더 우울해질 것 같아서(참여자 B)

힘든 일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중략)...노래가 되게 밝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힘든 나를 표현한다기보다 힘들면 안 돼. 밝아야 된다고 노래가 나를 압박하는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D)

#### 4. 치료적 노래만들기 기법의 구조성 경험

##### 1) 구조화된 과정의 장점

참여자들은 치료적 노래만들기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기록되는 것 등이 구조적이라고 생각했다. 이전의 경험과 비교했을 때 구조적인 과정이 노래를 수월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다.

노래만들기는 구조적인 것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월했다는 느낌을 가장 많이 받았었고(참여자 C)

노래만들기는 감정들을 더 구조화 시키고 가사나 음악으로 다시 표현하고 재구성을 해야 하는 게 (즉흥연주와) 크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참여자 E)

##### 2) 수정 가능한 유연한 구조

연구 참여자들은 치료적 노래만들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정이 가능한 점이라고 했다. 일반 노래만들기와 달리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포용하고 수용하여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때 비교적 덜 부담스럽고, 가사의 완성도가 높은 것 같다고 했다.

같이 수정하고 토의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오히려 그런 부분(부담)은 조금 덜한 느낌이에요(참여자 B)

전체적으로 치료적 노래만들기는 우리가 같이 만들면서 수정도 가능하고, 완성도가 높은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했어요(참여자 E)

##### 3) 과정에서 일어나는 치료경험

연구 참여자들은 노래만들기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치료적 노래만들기의 유연한 구조를 통해 결국 자신들의 이슈를 바탕으로 노래가 완성된 것이 신기하고 가장 인상 깊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노래가 만들어지지 생각했는데 대화하고 하나, 하나씩 그 과정을 하면서 노래가 만들어지니까 신기하기도 하고...(중략)...새로운 경험이었어요(참여자 A)

저는 이제 마지막에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볼 때가 인상 깊었던 게, 만들어지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참여자 C)

## 5. 음악을 통한 자기인식의 발전

### 1)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 자각

참여자들은 노래만들기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를 자각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밝은 노래를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제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런 모습을 알게 된 점이에요(참여자 D)

저는 뭔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노래만들기 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중략)...너무 막 우울하고 부정적인 것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A)

같은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되게 좀 부족했구나. 이런 점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참여자 E)

### 2) 다양성에 대한 경험과 수용

참여자들은 노래만들기 과정 중에서 다양한 시도를 해보기도 하며 새로운 경험을 했다.

(상대방은)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었고, 저는 원래 밝게 끝나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중략)...새로운 경험이었어요(참여자 A)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나누게 되면서 새롭게 알게 되는 감정이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참여자 E)

### 3) 치료 경험의 필요 인식

참여자들은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활동을 통해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표현하며, 그룹원과 상호작용하는 등의 다양한 치료적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또한 내담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도 있게 되고 음악치료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기법을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이렇게 배우면서 치료사로 참여한 자리 말고 정말 내담자로 참여하는 자리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참여자 D)

이런 경험이 많아지지 내담자들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악치료 경험수업 같은(참여자 A)

이런 경험을 나누고 직접 체험하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치료사로서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거든요. 그런 욕구가 되게 컸구나하고 느낄 수 있었어요(참여자 E)

자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항상 듣지만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중략)...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참여자 C)

## 6. 집단작업을 통한 관계적 경험

### 1) 타인을 의식

참여자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그룹원들에게 피해나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감을 느꼈다.

개인 치료라면 모르겠는데 그룹은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참여자 B)

내가 잘 못할 것 같아서? 결과물을 만드는 부분에서 내가 그룹원에게 피해가 될까봐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참여자 E)

### 2) 다양한 의견과 통합

참여자들은 다양한 생각을 통합하여 하나의 노래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기도 했다.

참 달랐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고...어떻게 하면 이 중간점을 찾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참여자 B)

다 원하는 성향이 다르고 원하는 스타일도 다 다른데 그걸 맞춰가는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참여자 C)

이야기를 할 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것저것 다 이야기를 하게 된 것도 되게 신기했고, (서로) 의견을 조율했던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참여자 E)

### 3) 완성된 하나의 노래

참여자들은 함께 하나의 노래를 완성했다는 것을 의미 있고 특별하게 생각했다.

의미 있었던 경험은 그룹원들과 같이 만들었고 또 그게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든 기록을 했고 결과물이 나왔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C)

우리의 곡이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더 뭔가 특별하게 느껴지는(참여자 A)

노래를 만들 때 나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은 누군가 다시 채워주고 같이 해 나가면서 완성했던 것들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B)

### 4) 공감과 지지 경험

참여자들은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하고 위로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꼈다. 공동으로 하나의 노래를 완성하면서 정서적으로 가깝고, 친밀하게 느꼈다고 했다.

그러니까 공감? 지지 받았다는 느낌.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위로였고. 그런 것들을 가사에 담고 또 멜로디에 담고 하면서 같이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내 의견이 수용됐다는 지지 경험이지 않았나(참여자 B)

같이 실습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니까 아 나만 이렇게 힘들게 느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서로 이야기 하면서 털어놓는 것 자체만으로 그런 살짝은 후련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같은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E)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과정에서 의미 있었던 경험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섯 명의 음악치료 인턴들을 대상으로 2회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워크숍을 진행한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총 6가지 주제와 18개의 부주제가 도출되었고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참여 음악치료 인턴들은 평소 접해보지 못했던 치료적 노래만들기 기법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한편 전문적으로 음악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작곡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치료적 노래만들기가 '임상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이는 일정부분 Namkoong(200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Namkoong(2005)에 따르면 음악 전공의 여부가 음악에 대한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며, 음악 비전공자의 음악기술 자신감이 음악 전공자에 비해 낮다고 보고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대해 임상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에 반해, 그들은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통해 새로운 기법과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 임상에서 적용할 수 있기 되기를 기대 하였다. 이는 Kim(2018)의 연구에서 음악치료 인턴학생들이 심층음악심리치료인 음악심상을 경험하면서 음악치료 기법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즉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대한 부담, 걱정, 두려움을 느낌과 함께 새로운 것 기법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는 양가감정을 보인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치료적 노래만들기의 핵심과정인 작사와 작곡 경험에 대해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은 작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고민, 감정 등을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며, 참여자 간 상호작용은 그들로 하여금 공감과 지지, 수용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해외 연구자들에게서도 보고되는 내용이다(Baker & Wigram, 2008). 예비음악치료사인 이들에게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매우 익숙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작곡은 심적 부담감을 가지고 수행했던 도전이었기 때문에 작곡에 임할 때 이들은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작곡 작업 자체가 이들에게 의미는 있지만 두려운 도전이었음을 뜻한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전문적 음악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한점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곡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노래를 완성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직면해서 잘 다루었음을 나타낸다(Baker & Wigram, 2008). 이들은 또한 작사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고 느낀 한편, 공동 작곡한 노래 스타일에 정서적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치료적 노래만들기 과정 자체가 참여자들로 하여금 평소 간과했던 자신의 특성을 발견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자신들이 만든 특정 음악스타일로 인해 예비 치료사들의 정서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음악 자체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음악치료사가 임상에서 얼마나 주의 깊게 음악을 선정하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즉 치료적 노래만들기 과정 뿐 아니라 그들의 최종 완성물은 참여자들의 태도와 정서에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경험은 음악치료 인턴들의 개인적, 전문가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기록되는 치료적 노래만들기의 구조성이 비교적 다른 접근법(예: 즉흥연주)보다 수월하게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또한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통해 자신들의 이슈가 안전하게 반영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라 표현했다.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예측가능한 과정은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고,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평소 간과하고 있던 스스로의 내적 정서 및 자기치료 욕구를 자각하고, 자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경험을 하였던 것이다. 참여자들이 이미 수년간의 음악치료 교육과정

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는 작업에 익숙해 있었던 점도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적 집단을 통해 참여자 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다양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가며 자기 인식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다(Jackson & Gardstrom, 2012).

치료적 노래만들기 참여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법을 학습하는 기회 또한 제공했다. 이러한 경험은 인턴 치료사로 하여금 자기 작업 또는 치료 경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였고, 자신들이 담당했던 내담자를 심도 깊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Kim(2013)은 예비 음악치료사들이 경험적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는데, 본 연구 또한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Cho(2010)는 치료사가 개인 치료 경험을 통해 내담자에게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치료사들이 치료를 받는 경험이 꼭 필요한 과정임을 보고하고 있다.

다음은 이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미니 포커스 그룹을 통해 음악치료 인턴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단기 워크샵 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단기 경험(2회)에 바탕을 두었기 때문에 참여자들이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에 충분히 익숙해 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치료적 노래만들기 중장기 경험에 대한 탐색을 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시도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시도도 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다양한 환경에서 임상을 진행 중인 인턴 음악치료사나 전문 음악치료사를 대상으로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진행하거나, 실제 음악치료 세션에서 내담자들의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을 탐구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이 음악의 장르나 스타일에 주요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치료적 노래만들기에서 작곡 장르나 스타일이 참여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해서 연구를 해 볼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참여한 음악치료 인턴들의 경험을 탐구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음악치료 인턴은 학생과 치료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직무 관련 불안, 어려움 및 개인적 이슈를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 치료적 노래만들기 경험 집단은 음악치료 인턴들에게 스스로의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문 음악치료사로써 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치료적 노래만들기를 통한 음악치료 인턴들의 집단 경험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 References

- Baker, F. A., & Krout, R. E. (2011). Collaborative peer lyric writing during music therapy training: A tool for facilitating students' reflections about clinical practicum experiences. *Nordic Journal of Music Therapy, 20*(1), 62-89.
- Baker, F. A., & Wigram, T. (2008). *Songwriting: Methods, techniqu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or music therapy clinicians, educators and students* (M. H. Choi,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2005)
- [Baker, F. A., & Wigram, T. (2008). **치료적 노래 만들기** (최미환 역). 서울: 학지사. (원저 2005 출판)]
- Braun, V., & Clarke, V. (2006). Using thematic analysis in psychology.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3*(2), 77-101.
- Bruscia, K. E. (2003). *Defining music therapy* (B. C. Choi,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8)
- [Bruscia, K. E. (2003). **음악치료** (최병철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8 출판)]
- Cho, K. R. (2010). *A phenomenological research about music therapists' motivation for choosing and maintaining the path of music therapis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조경림 (2010). **음악치료사의 길을 선택하고 유지해가는 치료사들의 동기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Choi, H. R. (2009). The counselor's self-car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1), 1-19.
- [최해림 (2009). 상담자의 자기 돌봄. **인간이해, 30**(1), 1-19.]
- Chong, H. J. (2015). *Music therap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2nd e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2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Connelly, L. M. (2015). Focus groups. *Medsurg Nursing, 24*(5), 369-371.
- Corey, M. S., Corey, G., & Corey, C. (2013). *Groups: Process and practice*. Pittsburgh, PA: Cengage Learning.
- Creswell, J. W., & Poth, C. N. (2016).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CA: SAGE Publications.
- Guba, E. G., & Lincoln, Y. S. (1989). *Fourth generation evaluation*. CA: SAGE Publications.
- Jackson, N. A., & Gardstrom, S. C. (2012). Undergraduate music therapy students' experiences

- as clients in short-term group music therapy. *Music Therapy Perspectives*, 30(1), 65-82.
- Jeong, W. J. (2013). *A study on self-empowerment through a vocal improvisation of trainees specialized in music 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정우진 (2013). 음악치료 전공생의 목소리 즉흥을 통한 자기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in, S. J. (2005). The effect of musical application to develop the emotional expression of mentally retarded adult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2(1), 17-33.
- [진선주 (2005). 성인정신지체인의 감정 표현 향상을 위한 음악 활용의 효과.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2(1), 17-33.]
- Kang, H. J., Lee, H. S., & Choi, H. N. (2016). Concept mapping on self-care perceived by counselo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7(2), 25-45.
- [강현주, 이홍숙, 최한나 (2016). 상담자의 자기 돌봄(self-care)인식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17(2), 25-45.]
- Kim, D. M. (2009). *The relationship among shame, attachment style, self-efficacy, emotional attachment, and evaluation anxiety in music therapy group supervis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김동민 (2009). 집단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가 지각하는 수치심, 애착유형, 자기효능감, 정서적 유대, 평가불안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Kim, G. M., & Chung, N. W. (2004). Novice therapists' difficulty experienced in counseling session and coping process: A qualitative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6(1), 1-20.
- [김길문, 정남운 (2004). 초보 상담자가 상담 회기 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 과정: 질적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1-20.]
- Kim, H. J., & Kim, C. N. (2001). Review of literatures on focus group method in qualitative study.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5(1), 1-21.
- [김후자, 김정남 (2001). 질적 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연구방법(Focus group method)에 대한 고찰. **계명간호과학**, 5(1), 1-21.]
- Kim, S. Y. (2013). *The study on music therapy student's current additional curricular training and need for professional compet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김소영 (2013). 음악치료 대학원생의 치료사 역량 훈련 필요성 인식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Y. S., Jeong, J. H., & Ko, M. H. (2013). A qualitative study of Korean music therapist's turnover experiences. *The Arts in Psychotherapy, 40*(5), 449-457.
- Kim, Y. S. (2018). Music and imagery as a method for mindfulness: Exploration of music therapy interns' experience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5*(2), 93-114.  
[김영실 (2018). 마음챙김의 방법으로서 음악심상: 예비음악치료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5**(2), 93-114.]
- Kruger, R. A., & Casey, M. A. (2015).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5th ed.). London: SAGE Publications.
- Lee, J. Y. (2010). *A phenomenological research about music therapist's experience in an internship* (Unpublished ma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이지연 (2010). **음악치료사의 인턴십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Maguire, M., & Delahunt, B. (2017). Doing a thematic analysis: A practical, step-by-step guide for learning and teaching scholars. *The All Ireland Journal of Teaching and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9*(3), 3351-33514.
- McCaffrey, T. (2013). Music therapists' experience of self in clinical improvisation in music therapy: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The Arts in Psychotherapy, 40*(3), 306-311.
- Nam-Koong, J. S. (2005).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 of whether a graduate student of music therapy majored in music at undergraduate school or not on the responses to curriculum in the graduate school of music therap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oung Women's University, Seoul.  
[남궁지숙 (2005). **음악치료사 교육과정에서 학부 음악전공 여부가 대학원 교육과정에 미치는 반응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Rabiee, F. (2004). Focus-group interview and data analysis. *Proceedings of the Nutrition Society, 63*(4), 655-660.
- Shin, K. R., Ko, M. S., Kong, B. H., Kim, K. S., Kim, M., Kim, E., ... & Cho, M. Y. (200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신경림, 고명숙, 공병혜, 김경선, 김미영, 김은하, ... 조명옥 (2004).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Then, K. L., Rankin, J. A., & Ali, E. (2014). Focus group research: What is it and how can it be used? *Canadian Journal of Cardiovascular Nursing, 24*(1), 16-22.
- Yoo, K. S. (2019). A study on the meaning of counselor's self-reflective witnessing for safe space: From the point of view of authentic movement of Jung. *The Journal of Welfare and Counselling Education, 8*(1), 239-255.

[유경숙 (2019). 안전한 공간을 위한 상담자의 자기 성찰적 바라보기에 대한 의미 고찰:  
Jung의 진정한 움직임 중심. **복지상담교육연구**, 8(1), 239-255.]

Wheeler, B. L. (2000). Music therapy practicum practices: A survey of music therapy educators. *Journal of Music Therapy*, 37(4), 286-311.

- 게재신청일: 2019. 11. 05.
- 수정투고일: 2020. 03. 10.
- 게재확정일: 2020. 05. 12.

## Thematic Analysis of the Therapeutic Song Writing Experience of Music Therapy Interns: A Focus Group

Park, Chanyang\*, Kim, Jinah\*\*

The internship is essential for the music therapy curriculum and affords interns the opportunity to apply their classroom-based knowledge and skills to real-world clinical settings. However,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internship can result in interns undergoing trial-and-error learning, interpersonal conflicts, and intrapersonal difficulties. An experiential music therapy group may be useful in helping interns process these incidents and develop their personal and professional skills. We explored the experiences of music therapy interns participating in therapeutic song writing. In this study, five music interns completed two 4-hour sessions of therapeutic song writing. Following the second session, a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participants to gather data on their experiences. The interview was recorded, transcribed, and analyzed. Six themes and 18 sub-themes were derived from the data. The six themes were preconceptions of therapeutic song writing, meaningful lyric creation, challenges in song composition, structured experiences during song writing process, development of self-awareness through music, and relational experiences resulting from the group process. Participants were able to incorporate their individual internship experiences into a single song by communicating with group members during the step-by-step process. Participation in therapeutic song writing was found to help music therapy interns identify and process challenges encountered during their internship and further their personal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Keywords:* music therapy interns, experiential group, therapeutic song writing, focus group

---

\*First author: Hebron University for Missions, Korean Certified Music Therapist(KCMT)  
(morning557@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Jeonju University College of Cultural Convergence Dept. of Creative Arts  
Psychotherapy(jinahkim@jj.ac.kr)

## 〈Appendix 1〉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결과

주제	하위주제	코딩 예시
치료적 노래만들기에 대한 선입견	기법에 대한 호기심	치료적 노래만들기의 과정과 치료적 효과에 대해 궁금했음
	임상 적용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치료적 노래만들기는 임상에서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해보지 않음
	작곡에 대한 부담과 걱정	작곡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걱정되고 위축됨
의미 있는 작사과정	작사는 나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를 가사로 구성한 것이 의미 있었음
	공동 작사를 통한 공감과 소통	작사 과정에서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것이 재미있었음
작곡에서의 도전적 경험	노래의 완성도에 대한 부담	음악과 관련된 일을 하니까 높은 수준의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음
	작곡에 대한 부담	작곡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음
	음악 정서기(valance)에 따른 영향	우울한 노래가 자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았음
치료적 노래만들기 기법의 구조적 경험	구조화된 과정의 장점	구조적이고 순차적인 진행으로 인해 노래만들기가 쉬웠음
	수정 가능한 유연한 구조	치료적 노래만들기는 수정이 가능해서 즉흥노래보다 덜 부담스러움
	과정에서 일어나는 치료경험	노래가 구조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했음
음악을 통한 자기인식의 발전	음악을 통해 자신의 내면 상태 자각	밝은 노래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자신을 발견함
	다양성에 대한 경험과 수용	익숙하지 않은 스타일로 노래를 만든 것은 새로운 경험이었음
	치료 경험의 필요 인식	치료적 경험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인식함
집단작업을 통한 관계적 경험	타인을 의식	그룹 작업에서는 그룹의 역동과 다른 사람을 신경 쓰게 됨
	다양한 의견과 통합	같은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기했음
	완성된 하나의 노래	그룹 작업을 통해 서로 보완해가며 노래를 완성한 것이 의미 있었음
	공감과 지지경험	그룹 작업을 통해 공감과 지지를 경험